

노량진(오전)	6시
오전(1부)	7시
주일에배	오전(2부) 10시
	오후(3부) 2시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사구 공향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2년 6월 19일 (제1154 호)

1부(오전)	7시
주일에배	2부(오전) 10시
	3부(오후) 2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우선순위

어느 장로와 골프를 하는데, 그가 공을 치다 말고 뜬금없이 ‘목사님, 저는 무조건 ‘주 가사’ 순서대로 삽니다.’라고 말했다. ‘주가 사가 뭐야?’ 하니, 그는 “‘주(主)’는 주님이 고요, 그다음에 ‘가(家)’ 가정이고요, 그리고 ‘사(事)’ 사업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맞다.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그 중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은 바로 그 장로의 말대로 주(主), 하나님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6:33)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 순서가 뒤집히는 순간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옷 순서를 바꿔 입고 나 오면 손가락질하면서, 아무리 건축 기술이 발달해도 지하부터 공사해야 함은 알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뒤로 미룬다. 중요한 것보다 당장 급한 것을 먼저 한다. 당장 거래처에 가야 하기 때문에 주일성수를 뒷전으로 미룬다. 당장 아이들 학자금이 모자라니까 십일조를 뒤로 미룬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이 순서대로다.’라고 못박으신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요삼1:2).

어떤 스승이 제자들을 두 팀으로 나눈 뒤 각각 큰 항아리와 큰 돌덩이, 자갈, 굵은 모래를 똑같이 나눠주었다. 그리고 한 팀에겐 ‘작은 것부터 넣어라.’ 했고, 다른 팀은 ‘큰 것부터 넣어라.’ 했다. 그런데 작은 것부터 넣은 팀은 돌을 다 넣지 못했다. 작은 것들로 인해 큰 돌이 못 들어갔다. 그러나 다른 팀은 항아리에 다 담았다. 그것은 먼저 큰 것을 넣고 나중에 자잘한 것들을 넣으니 그것이 틈틈이 다 들어간 것이다. 스승은 제자들에게 말했다. “인생을 중요한 것부터 채워라.” 이 말씀이 성경에 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 뒤에는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이다. 중요한 것, 곧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삶에 채우면 자잘한 것도 다 들어가서 넘친다는 말씀이다. 6월 22일 저녁 8시, 평화통일 기도성회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다. 바빠도, 다른 급한 일이 있어도 중요한 이 집회에 우리 모두 참석하자.

운택한 삶을 원하면 구제하라

우크라이나(Ukraine) 드니프로(Dnipro) 예수중심교회의 슬라바(Slava) 목사님이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헌금을 모아 보냈더니 드니프로로 몰려드는 피난민들에게 빵과 음료수, 옷가지 등 구제품을 제공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전쟁의 참화로 집도, 가족도 잃고 실랑민이 되어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 과거 6·25전쟁 때 미국을 비롯한 해외선교사들이 들어와 전쟁고아들을 돌보고, 구제 및 구호품들을

주시며 운택한 삶을 원하면 구제에 힘쓸 것을 강조하셨다.

“운택한 삶을 사는 사람들,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나 그 공통점은 항상 철저히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먼저 내가 운택하지 않고서는 남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늘 강조하듯이 먼저 내가 서 있는 땅이 기름져야 합니다. 내가 있어야 남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단이 저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 시절, 바로의 애굽이 흉년의 때에 오

손으로 하는 바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신15:10). 구제에 힘썼던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 중에 처음으로 성령을 받는 복을 받았습니다(행10장). 2차대전 당시 적으로 싸웠던 독일, 일본의 재건을 도운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의 부와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복을 도왔고, 아이티에 지진에 났을 때 적십자를 통하여 지원했으며, 남미 파라과이와 우루과이에 컨테이너로 구제품을 보내곤 했습니다. 또한 해마다 쌀과 김장, 연탄 등으로 불우한 이



파라과이와 우루과이에 보내는 153구제품

전달하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과 같은 역사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룬 밑바탕에는 분명히 이러한 이름 모를 헌신들이 자리하고 있다. 목사님은 우크라이나 종전 후 직접 현지에 들어가 교회 재건을 돕겠다고 누차 말씀하셨다. 한국 전쟁 때 해외 선교단체와 선교사들이 했던 일들을 우리 교단이 우크라이나에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이다. 먼 훗날 우크라이나 재건의 역사에는 오늘 우리 교단의 지원과 헌신이 함께 자리할 것이고, 나아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늘 나라에 기억되리라 확신한다.

목사님께서서는 지난 수요일예배를 통해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보내온 영상을 보여

히려 번영을 누리며 주변국을 도울 수 있던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풍년의 때에 철저히 흉년을 대비해야 한다는 요셉의 지혜를 바로가 적극 수용하여 실행한 결과입니다. 있는 자를 더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운택한 삶을 살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구제하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운택하게 하는 자는 운택하여지리라’(잠11:25). 그럼 구제를 어떻게 하느냐?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네

옷들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부족함 없이 세계 73개국에 복음을 전하며 성장해가는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이 노후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사후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구제는 이 땅의 운택한 삶뿐 아니라 천국에 보물을 쌓는 비결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날아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돈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썩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눅12:33). 오늘 말씀을 실천하여 모두가 운택한 삶을 이 땅에서, 그리고 천국에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평화통일 기도성회

일시: 2022년 6월 22일(수) 저녁 8시

장소: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막9:23)

믿음의 말을 들어야 믿음이 성장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요14:14).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기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습니다(마1:21).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세상에 두고 갈 제자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요17:11)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 외에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음은 바로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행4:12).

사과 씨 속에 사과나무가 있다

더욱 놀랄 만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26 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의 이름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三位)가 일체(一體)이심이 증명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요, 우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는 극소수의 사람만 그분을 볼 수 있었지만, 성령 시대인 지금은 예수를 믿고 회개만 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친히 오시는 것이니 복 중의 복이라 할 수밖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마디로,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어두컴컴해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잘 보이고, 어두워서 도둑이 들끓었는데 도둑이 떠나가고, 어두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빛 가운데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

라, 성령 충만하라’(살전5:19) 신신당부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잃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도, 예수님도 다 잃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주의 종들조차도 하나님은 보여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면 됩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고 앓은뱅이를 일으키고 병어리를 말하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이름으로요.

베드로가 앓은뱅이를 일으킬



총회장 이초석 목사

오 키고,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도 나음을 받은 이유가 됩니까? 이겁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물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이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행4:7~10). 성령 충만을 입은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귀신을 쫓고 각색 병을 고치는 것도 제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

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요14:9~10)고 하셨습니다. 도토리 안에 참나무가 있다고 해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도토리를 심어 나무가 자라면 그때야 믿게 되지요.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현현(顯現)입니다.

베드로, 바울이 사도여서 그런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지요?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

다면 성령을 받은 우리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 올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

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밟으며 무슨 독을 마실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막16:17~18).

더욱이 과학의 힘으로 넓은 공간을 쉽게 뛰어넘는 시대를 사는 요즘은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보다 큰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요14:12)는 말씀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싱가포르 세계목회자세미나에 갔을 때, 저를 통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자 많은 주의 종들이 몰려들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냐? 왜 우리는 같은 주의 종인데 그런 능력이 없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답해줬습니다. “먼저는 기도로 성령 충만을 입어야 하고, 둘째는 하

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 나뭇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 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효도도 부모님 뜻대로 해야 옳거든, 하물며 신앙생활을 내 뜻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신앙생활은 내 뜻,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마12:50)고 하였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7:21)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고후1:18)고 했고, 잠언에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잠19:21)고 말씀하심은 내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막8:34)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바로 내 뜻,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뜻과 생각대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 뜻을 버리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눅22:42).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2:6~8). ‘자기를 비어’, 자기의 뜻을 접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었더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빌2:9~10)고 하셨습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예수님이 받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 객원컬럼 ::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고 잘 지켜라

총회장 목사님께서서는 항상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필요한 것은 남보다 더 줘야만 살 수 있기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후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것처럼(마13:44)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야 한다고 하였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로브도 <목숨을 걸고 투자하라>에서 투자와 관련하여 동일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보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요령을 배울 때까지는 분산투자가 필요하며, 이 내용은 경험이 많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투자자금을 현명하고 안전하게 운용하는 방법은 집중투자인데, 로브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상황이 불확실하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 무언가 떠오르면 전력을 다해 끝까지 쫓으라. 전력을 다해 쫓을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처음부터 시작할 가치도 없는 것이다. 반드시 처음에는 충분한 현금을 갖고 시작해야 한다.” 그다음 한 종목에 적은 금액을 투자해보는 것입니다. 투자한 종목이 생각처럼 움직여주지 않는다면 일단 빠져나와 도로 현금화해야 하며 만약 기대했던 대로 움직여준다면 이 한 종목의 보유물량을 순차적으로 늘려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물량을 최대한 늘린 이 종목을 매도한 다음에, 다시 말하지만 그 이전이 아니라 그 다음에 비로소 두 번째 매수 종목을 탐색하라는 것이지요.

로브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계란 전부를 한 바구니에 담은 뒤 그 바구니를 최선을 다해 지키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의가 산만해질 리도 없고 정말로 신중하게 행동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장이 소화할 수 있는 물량 이상을 매수하지 말며 그런 점에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 도주에 투자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분산투자는 이것저것 한 묶음으로 투자하다 보면 좋은 종목도 있고 나쁜 종목도 포함될 테니, 평균 정도면 만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도피처일 뿐이라고 로브는 말합니다. 오로지 주식시장의 주요 종목들만 매수하라, “이번 세일에는 포함되지 않는” 그런 종목들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 일정한 수요가 있는 주식만 매매하는 게 중요한데 분산투자를 하다 보면 잠시 유행을 타는 종목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게 되지요. 하지만 이런 종목은 곧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매수자조차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능한 투자자에게 가장 안전한 방법은 갖고 있는 계란을 전부 한 바구니에 담아 이 바구니를 최선을 다해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것처럼 제때 팔릴 수 있고 날이 갈수록 변화 성장하여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미래가치가 있는 종목에 집중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잠4:7).

이미경 권사
lmkwdf@hotmail.com

:: 신앙논객 ::

청출어람(靑出於藍)의 조건

열왕기하 2장에는 선지자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길갈과 벧엘, 여리고를 지나는 장면이 나온다.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각 지역의 선지 생도들은 이미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늘로 올라갈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 엘리사는 다른 생도들과는 다르게 계속 스승인 엘리야를 쫓아다닌다. 엘리야가 아무리 그 자리에 머무르라고 해도 엘리사는 막무가내로 맹세까지 하면서 기어코 스승이 승천하기 직전까지 계속 그와 함께 있었다. 다른 선지 생도들도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라며 그를 만류했지만 엘리사는 단호했다.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승천하기 전 엘리야가 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자 그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대”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일은 실제로 이루어졌다. 다른 선지 생도들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갈라진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멀리서 지켜봐야만 했다.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겔옷으로 엘리야가 했던 것과 똑같이 요단강을 갈랐고, 이후 스승인 엘리야보다도 더 많고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며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청출어람(靑出於藍), 제자가 스승보다 더 뛰어나다는 말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요14:12)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예수님의 복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초대 교회의 사도들을 통해 널리 퍼졌다.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그들과 함께 계셨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랐으며, 스승이신 예수님과 동일하게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며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를 주었기 때문이다.

총회장 목사님은 교단 산하의 제자들에게 당신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이 배출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신다.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 엘리사처럼 누가 뭐라고 하든 개의치 않고 끝까지 목사님과 함께 하자. 그리고 목사님을 따라 해보자. 멀리서 지켜만 보는 선지 생도 중 하나가 될지, 아니면 요단강을 가르며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서는 엘리사가 될지는 여기서 판가름 난다.

신혁주 전도사

:: 오늘의 메시지 ::

고난의 때를 이기라

나그네가 땀을 뻘뻘 흘리는 대장장이에게 묻는다.

“당신은 금을 연단할 때 이것이 순금이 되었음을 어떻게 아십니까?”

대장장이는 대답했다. “예, 금을 수없이 연단하여 그 속에서 내 얼굴이 얼마나 정확히 비치는가로 결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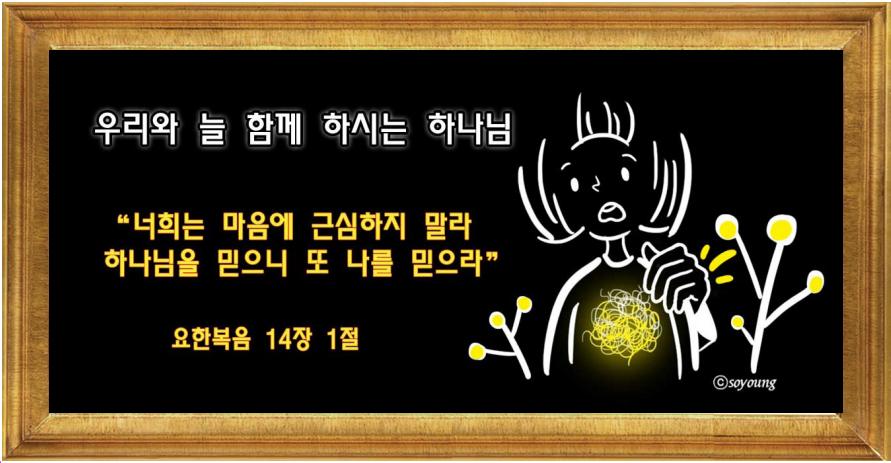
하나님께서서는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찌꺼기를 없애신 후에 축복을 이루어 주신다. 고난의 대명사 욥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기록한다(욥23:10). 우리 목사님은 “누가 꽃길만 걷는가?”라며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니 외롭고, 고달과 부르짖었더니 주님의 손길과 사랑으로 덮여 주셨다고 찬양하셨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큰 유익을 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고난은 문제가 아니라 기회요, 훈련이며 축복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

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으나 이제 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 고난이 유익’이라고 교훈하고 있다(시119:67, 71).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것은 인내와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라 했고(롬5:3~4), 야고보는 ‘여러 시험 중에 기뻐할 것은 인내 후에 부족함이 없게 하려함’이라 했으며(약1:2~4), 베드로는 ‘시험 중에 잠깐 근심하나 크게 기뻐할 것은 예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함’이라고 말씀하신다(벧전1:6~7).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떠는 백성들에게 밤새 부는 동풍은 더욱 큰 고통이었을 것이나 결국 그 동풍이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이 되게 했다는 하나님의 교훈을 기억하고(출14:21), 고난 중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견디고 버티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김상욱 목사



:: 생명의 말씀 ::

말로 복을 잉태하자

뉴욕의 브루클린이란 흑인 거리가 있다. 상상대로 더럽고 무질서하고 절망적인 곳이다. 이 브루클린 빈민가의 학교에 풀이라는 선생이 새로 부임한다. 풀은 전근을 오기 전부터 그 학생들이 얼마나 불량한지 들어 알고 있었다. 어느 날, 풀은 빈민가 사람들이 미신에 집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풀은 책을 들고 교실에 들어가서는 아이들에게 장난삼아 말했다. “내가 어려서 학교에 다닐 때, 마을에는 주술사가 있었어. 그 주술사는 손금을 아주 잘 봤어. 나도 그에게 손금을 봤는데. 나더러 커서 선생이 될 거라고 하더구나. 그런데 정말로 선생이 되었잖니? 주술사는 나에게도 손금 보는 법을 가르쳐주었어. 그래서 난 손금을 볼 줄 아는데 오늘은 내가 너희들의 손금을 봐줄게.” 풀은 먼저 피터의 손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뜻밖이래는 표정으로 이렇게 외쳤다. “오! 넌 커서 기업가가 되겠구나. 크게 성공할 거야. 축하한다. 피터!” 이 말에 피터는 몹시 들떴고, 아이들은 너도나도 손금을 봐달라고 재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에게 손금을 본 아이들은 하나같이 기쁨과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풀은 모

든 아이에게 커서 백만장자나 높은 지위에 오를 것을 예언했기 때문이다. 맨 마지막으로 한 흑인 소년의 차례가 되었다. 아이는 서둘러 보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내심 선생의 입에서 불길한 말이 나오면 어쩌나 걱정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단 한 명도 자신을 좋아해준 사람이 없었고, 또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해준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다. 아이는 긴장된 표정으로 선생을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풀은 아이의 작은 손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진지하고 확신에 찬 말투로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 굉장하구나. 넌 커서 뉴욕의 주지사가 될 거란다.” 아이는 감격했다. 그 순간 반드시 주지사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그때부터 아이들은 싸우거나 무단으로 결석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고, 나쁜 버릇이 사라져 완전히 다른 아이로 바뀌었다. 풀의 학급 학생들은 대부분 커서 정말로 부자가 되거나 높은 지위에 올랐다. 마지막으로 손금을 본 소년은 51세에 뉴욕 53대 주지사이자 미국 최초의 흑인 주지사 ‘로저 톨스’이다. 이것이 말의 힘이다.

임택함 목사

거절된 기도의 응답은 지연된 하나님의 약속!

한 부자(富者)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무인도 하나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잘 심고 꽃도 여기저기 심어 아름다운 섬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좋아하는 토끼를 풀어 놓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토끼들은 눈빛이 흐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털에 윤기가 사라지면서 병든 토끼같이 보였습니다. 드디어 시름 시름 앓기 시작하였습니다. 부자는 탄식하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병이 나다니.” 수의사를 불렀지만 고개를 저으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지혜로운 랍비를 찾아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현자는 꺾꺾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리를 같이 기르십시오.” 부자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토끼를 다 잡아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랍비가 말했습니다. “토끼의 병은 환경이 너무 좋아서 생긴 병입니다. 이리와 함께 기르면 이리에 안 잡아먹히려고 힘차게 도망 다닐 것입니다. 눈빛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다리에 힘이 생기고 털에 윤기가 흐를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토끼들은 몇 마리 잡아먹히기는 하였지만 모두가 건강하였습니다. 철학자 토인비의 책, ‘도전과 응전’(挑戰과 應戰)은 정말 의미심장한 책입니다. 토인비는 그 책에서 자연조건이 좋은 환경에서는 인류 문명이 태어나지 않았고, 거의 다 거친 환경, 가혹한 환경에서 이

루어졌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고대 문명과 세계 종교의 발상지는 모두 광야 같은 안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집트 문명, 수메르 문명, 인도 문명, 중국 문명이 그렇습니다.

이집트 문명을 일으킨 민족은 아프리카 북쪽에서 수렵생활을 하며 지내고 있던 이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5, 6천 년 전이었습니다. 강우(強雨) 전선이 북쪽으로 이전하게 되어 아프리카 북쪽이 모두 사막지대로 변하게 되자 세 부족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남아서 그냥 그대로 살아간 부족... 그들은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북쪽으로 강우 전선을 따라간 부족도 그곳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맹수와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나일강 지역으로 이주하여 농경과 목축, 어업으로 생활방식을 바꾼 부족들이 찬란한 이집트 문명을 만들어냈습니다. 나일강의 범람 시기를 알아내기 위해 천문학과 태양력을 발달시켰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하였다가 물이 빠지면 온통 축대밭이 된 토지를 나누기 위하여 기하학, 측량술이 발달하였고, 범람을 막기 위해 제방술이 발달하였습니다. 도르래가 발명되고 축대를 쌓는 기술이 탁월해졌습니다. 그래서 불가사의의 피라미드를 만들어냈습니다. 거친 환경이 유능한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거친 환경에서 살아온 민족은 유대인입니다. 주후 70년 7월 9일

나라를 빼앗기고, 1948년 5월 14일 독립할 때까지 1,900년 동안 이곳저곳 쫓겨다니며 나라 없는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을 잡아서 총쏘기 연습을 하기도 하였고, 총알 하나로 몇 명을 죽일 수 있는지 일렬로 세워놓고 총을 쏘는 실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히틀러는 600만 명을 학살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을 반기는 곳은 지구상에는 아무 곳도 없었습니다. 가장 가혹한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온 세계가 유대인을 박해할 때 유대인을 품어준 나라는 그래도 미국밖에 없었습니다. 2차 대전 후 몰려드는 유대인들에게 미국은 허드슨강변을 내 주었습니다. 험악하고 최악의 조건을 갖춘 거친 환경의 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웅변을 쌓아 허드슨강이 범람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금융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곳은 지금 온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곳이 지금의 월가입니다. 유대인 속에는 거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DNA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친 환경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은 더 많은 축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최고의 응답이 하나님의 거절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주실 때도 있지만 그 기도에 최고의 응답으로서 거절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많은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기도의 응답이 내 자식

이나 내 후손에게 이루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때에 최선의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오늘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힘들고 버겁고 세상을 향한 원망이 앞서십니까?

누가복음 18장에는 불의한 재판관에 맞서는 과부의 기도가 나옵니다. 항상 기도와 낙망치 말아야 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눅18:1)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눅18:7)입니다.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일사각오의 자세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도에 대한 최고의 응답이 하나님의 거절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거절은 하나님의 지연된 응답이며 지연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때에 최선의 것으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녀된 우리를 연단하신 후 정금 같은 응답을 반드시 주십니다. 수많은 훈련과 수련을 거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기 위해 거친 파도를 통해 우리를 유능한 사공으로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친 파도가 유능한 사공을 만듭니다.

신우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메디스팀 줄기세포센터)
대표원장 안계훈

:: 교단소식::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꾸자



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진취적으로 앞서 나가야 합니다. 마치 다른 생도들이 엘리야를 찾는 엘리사를 말할 때 엘리사가 그들 말에 주저하지 않고 자기 행보를 계속했던 것처럼(왕하2:3),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자들이 즉시 나가 적극적인으로 장사한 것처럼.

1970대 전 세계가 오일쇼크를 겪을 때, 상대적으로 산유국들은 오일머니로 경제 건설과 도로,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대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건설부 관리들과 건설회사 실무자들을 현장에 보내 사전조사를 벌였는데, 다녀온 그들 모두는 그곳은 열사라 물도 없고 너무 더워서 일을 할 수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마치 가나안을 탐지하고 온 열 명의 두령과 같은 보고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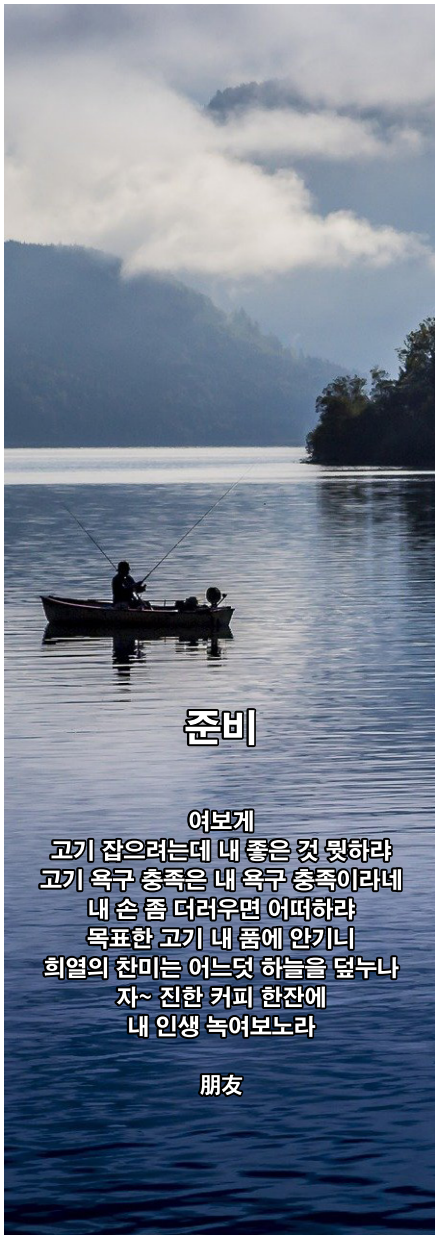
박 대통령은 정주영 현대 회장을 불러 다시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다녀온 정 회장은 대통령에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각하, 대박입니다. 날이 너무 더워서 콘크리트가 빨리 마르니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사방이 모래라 시멘트 작업하기도 좋습니다. 물은 해수를 담수로 만들면 해결됩니다.” 정 회장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인해 대한민국은 오일쇼크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80년대와 90년대 고도성장을 이룰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리더인 여러분이 이처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갖는다면 우리 교회는 분명히 성장 일변도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교육 후 모든 교역자들은 뜻 있는 장로님이 배운 맛있는 식사를 함께 했다.

오늘은 결코 다시 오지 않는다. 오늘 할 일을 다하고 내일 쉬자! 쉬는 날,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눅 22:30). 아멘!

신묘수 전도사



준비

여보게
고기 잡으려는데 내 좋은 것 뭣하랴
고기 욕구 충족은 내 욕구 충족이라네
내 손 좀 더러우면 어떠하랴
목표한 고기 내 품에 안기니
희열의 찬미는 어느덧 하늘을 덮누나
자~ 진한 커피 한잔에
내 인생 녹여보노라

朋友